

네오오페라이스모의 기본소득론

⋮

진성철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이 글은 네오오페라이스모(neo-operaismo) 이론가들의 기본소득론을 소개한다. 196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오페라이스모(노동자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노동계급이 놓여 있는 구체적 현실에 입각해 자본을 비판·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추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본 관계의 비대칭성, 즉 창조는 언제나 노동에서 시작되며 자본은 단지 이에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을 뿐이라는 직관이다. 이는 오페라이스모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형을 자본의 자기변신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에 맞선 자본의 대응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잘 드러난다. 이 점에서 비대칭성은 노동이 지닌,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이 될 잠재력의 긍정이다. 나아가 그들은 이 잠재력의 현실화가 자율적 주체성의 구성과 조직화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의 조건을 생산의 지형에서 찾는다. 이 점에서 오페라이스모는 맑스주의 전통에서 있다. 그들은 자본의 극복을 위한 물질·주체적 토대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맑스의 통찰을 공유한다. 요컨대 오페라이스모는 세계를 짓는 유일한 힘으로서 산 노동이 지닌 자율성의 긍정에서 출발해 생산지형의 분석에 기반하여 자율성의 현실화를 모색하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오늘날 오페라이스모 전통의 이론가들이 자신을 ‘네오’ 오페라이스모라 칭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네오라는 접두사는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196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에 이론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네오오페라이스모는 현대 생산양식을 인지자본주의, 삶정치적(biopolitical) 생산으로 특징짓는다. 인지자본주의론은 지식, 정보, 언어, 소통, 정동(affect)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현대의 주요한 생산 수단이자 대상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의 생산이 개별 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력과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맑스가 말한

자본의 “토대를 하늘로 날려버릴 물질적 조건들”이 오늘날 전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¹⁾ 같은 맥락에서 삶정치적 생산은 삶 자체가 가치의 원천이 됨에 따라 오늘날 생산의 모델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이 되었음을 강조한다.²⁾ 이는 주체성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주요한 투쟁의 지형이라는 인식과 관계된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은 자기증식하는 가치일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이며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재)생산에 의존한다.³⁾ 그렇다면 주체성을 생산하는 역량이 노동의 편에 있음을 의미하는 삶정치적 생산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지 않는 자율적 주체성의 생산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는 물론 오늘날 자본의 지배가 사라졌다거나 심지어는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꾸로 자본은 이러한 해방의 조건을 더욱 심화된 착취의 수단으로 전용한다. 따라서 오페라이스모는 현 시기 생산양식 못지않게 착취양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인지자본주의론자들이 지식경제라는 용어에 반대하고 인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⁴⁾ 사회적 노동의 확대가 자본에게 사회적 생산력에 무임승차하는 기회가 된다. 자기 생산적 주체성이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인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변질된다. 신자유주의가 놓는 불안정성의 덫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화폐를 통한 노동에의 종속을 가능하게 한다.⁵⁾ 이 핵심에 금융이 있다. 금융은 자본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사회적 협력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저 노동에의 종속을 심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한다. 요컨대 오늘날 변화된 생산양식에서 자율적 주체성의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이나 그 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소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이 네오오페라스모의 기본소득론이 제기되는 맥락이다. 네오오페라이스모 이론가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오늘날 생산양식의 변화 즉 사회적 노동의 확대에서 발견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제공할 생활의 보장이 신자유주의의 지배 수단인 화폐를 통한 노동에의 종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

네오오페라이스모 이론가들은 기본소득이 “소득의 재분배와 결부된 사회부조의 형태로 이해될 수

1) Karl Marx, Martin Nicolaus(trans.),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ught), 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93, p. 706.

2)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 · 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 책, 2014, 199면.

3) “우리가 부르주아 사회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체로서 고찰하면 사회적 생산 과정의 최종 결과는 그 언제나 사회 자체, 즉 사회적 관계 안의 인간 자신으로서 나타난다.” Grundrisse, p. 712.

4) J.-M. Monnier & C. Vercellone, “The Foundations and Funding of Basic Income as Primary Income”, Basic Income Studies 9(1~2), 2014, p. 62.

5) A. Fumagalli, “Cognitive Biocapitalism, the Precarity Trap, and Basic Income: Post-Crisis Perspectives”, in Garcia Agustin Oscar, Ydesen Christian (eds.), Post-Crisis Perspectives: The Common and its Powers, Peter Lang, New York, 2012.

없으며 [...] 대신에 생산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일차소득(primary income, 본원소득)으로 이해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 이는 사실 자본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자본주의는 임금노동-소득 고리의 관철에 기초해있다. 생활수단에 접근할 수 없게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 판매하여 얻는 임금을 통해서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임금은 노동시간을 척도로 개별노동이 전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계산된다. 주지하듯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은 처음부터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생산이 전체 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기여분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사회적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정치적 생산의 국면에서 위와 같은 척도와 그에 기반한 계산은 자본 자신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그 계산이 나름 합리적일 수 있는 유일한 규모는 사회 전체이다. 다시 말해 노동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라면 소득 또한 집단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과 소득 사이의 관계를 그것의 논리적 귀결까지 뒤쫓음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소득, 시민 소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개인적 노동과 소득 사이의 일체의 관계를 폐지한다. 마치 높이 오른 후에 사다리를 밀쳐버리는 것처럼 말이다.”⁷⁾ 노동 없이 소득 없다는 자본의 으름장은 기본소득의 요구 속에서 부메랑이 되어 자본에게 돌아간다. 생산이 있는 곳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차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의 요구는 임금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음과 동시에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단언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은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만 소유에 의해 가려져왔던 부의 공통적 성격을 감각할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대안 근대를 향한 기획 속에 배치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근대의 부르주아 사회는 경제, 정치 심지어는 주체의 개념마저 소유권에 기반해있는 소유 공화국이다.⁸⁾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관념은 소유권의 정당화를 고립된 직접적 노동에서 찾는다. 인류 공동의 것으로 주어진 토지에서 ‘이 만큼이 나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그 땅에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공통적인 것은 먼저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소유에 대립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함께 부에의 평등한 열린 접근 구조를 지칭한다.”⁹⁾ 대안 근대로의 이행이 소유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통적인 것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할 때 기본소득은 공통적인 것의 감각을 확대하는 계기로서 이 이행의 가속기로 기능할 수 있다.

3.

이행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의 핵심은 그것이 화폐를 통한 임금 노동에의 강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6) “The Foundations and Funding of Basic Income as Primary Income” p. 65.

7) M. Hardt, “Guranteed Income, or, The Separation Of Labor From Income”, Hybrid 5, 2000, p. 27.

8) 소유 공화국으로서 근대 사회에 대한 분석은 『공통체』, 29-53면 참조.

9) M. Hardt & A. Negri,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97. 사실 네그리(와 하트)의 사유에서 ‘공통적인 것’은 정치·경제적인 것을 넘어 존재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근본적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제104집, 2022를 참조.

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화폐를 교환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면 화폐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체현된 제도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화폐는 “축적과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분할 즉 자본-노동 관계의 재생산의 제도적 기등”이다.¹⁰⁾ 공유지의 종획과 시초축적의 결과 발생하는 화폐 접근의 계급 간 비대칭성, 즉 자본은 노동과 관계없이 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오직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서만 화폐 접근이 허락되는 사정은 노동에의 강요와 자본-노동관계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강요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아래서 새로운 형태로 그러나 한층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업률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고용의 불안정화 등으로 인해 삶의 재생산을 점점 더 부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바 이는 삶정치적 생산의 시기에 자본에게 자본-노동 관계의 재생산과 착취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¹¹⁾ “오늘날 자본가는 현장에서 저 멀리 축출되었고, 노동자들은 더욱 자율적으로 부를 생산하고 있다. 자본가는 이윤이 아니라 지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 이러한 지대는 대개 금융의 형태를 취하고 금융 수단들이 이것을 보증한다. 바로 여기가 생산 관계와 착취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무기로서 채무가 무대로 올라오는 곳이다. 오늘날 착취는 주로, (평등한 혹은 불평등한) 교환이 아니라 빚에 기초하고 있다.”¹²⁾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삶의 재생산을 보장하면서 다중—공통적인 것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대안적 주체성의 형상—의 편에서 노동에의 종속과 금융의 착취에 맞서는 무기가 된다.

이미 말했듯 화폐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체현물이라면 우리는 자본주의적 화폐에 맞서 공통적인 것의 화폐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특이성들(singularities)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며 그 생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관계를 체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공통적인 것의 화폐의 초석”이 될 수 있다.¹³⁾ 그것이 제공해줄 공통적인 것에 대한 감각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은 공통적인 것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사회적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독립된 생산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협동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체의 내부에서 순환하는” 화폐, 즉 공통적인 것의 화폐를 상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중요한 것은 이 초석이 놓일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율적이게 된 삶정치적 생산 말이다.

10) L. Baronian & C. Vercellone, “Monnaie du commun et revenu social garanti”, *Terrains/Théories*, 1, 2015, p. 2.

11)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의 덧의 생산에 의존하는바 불안정성에 맞선 요구로서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를 원리 자체에서 침식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소득은 개혁주의적 요구로 이해될 수 없다. “기본소득에 기초한 사회적 타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초, 진정한 토대 즉 생존을 위한 노동의 필요성과 축적의 원천으로서 사적 소유를 침식한다. 그러한 타협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A. Fumagalli, A. Giuliani, S. Lucarelli and C. Vercellone (eds.), *Cognitive Capitalism, Welfare and Labour: The Commonfare Hypothesis*, Routledge, New York, 2019, p. 72.

12) 안도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 옮김, 『선언』, 갈무리, 2012, 53면.

13) *Assembly*, p. 281.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의 화폐를, 협력의 화폐, 특이화의 화폐, 사회·지구적 투자의 화폐로 특징짓는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Assembly* pp. 281-284 참조.

14) “Monnaie du commun et revenu social garanti”, p. 5.

4.

기본소득은 이렇듯 자율적 주체성의 성장의 발판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성장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수령자들에 관한 한 연구¹⁵⁾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에서 드러나는 수령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 수령자들은 기본소득을 경험한 후에도 노동이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든가, 기본소득을 사회 부조의 하나로 심지어는 이후의 경제활동을 통해 갚아야 할 빚으로 받아들이는 등 기본소득운동의 이념과 상반되는 인식을 보였다. 물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고 규모도 작았으며 그 취지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례가 온전한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 불리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기본소득의 진정한 성패가 새로운 감각, 새로운 주체성의 창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본소득운동은 오늘날 등장 중인 대안적 주체성 즉 다중의 자기 구성적 기획으로 이해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기획은 먼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다중의 창조적 역량의 소외를 탈신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에 둘 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열리는 공통적인 것의 감각 속에서 다중은 기본소득을 자본에 맞설 무기이자 자기 구성을 위한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본소득의 성공적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도입된 기본소득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 바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운동과 공통적인 것의 생산 사이의 일종의 선순환적 관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구성적 기획의 물질적 조건은 이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으로서 삶정치적 생산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네오오페라이스모는 기본소득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하고 유효한 자율의 요구임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운동에서 네오오페라이스모의 기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5) 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안전과 열망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1, 2021.